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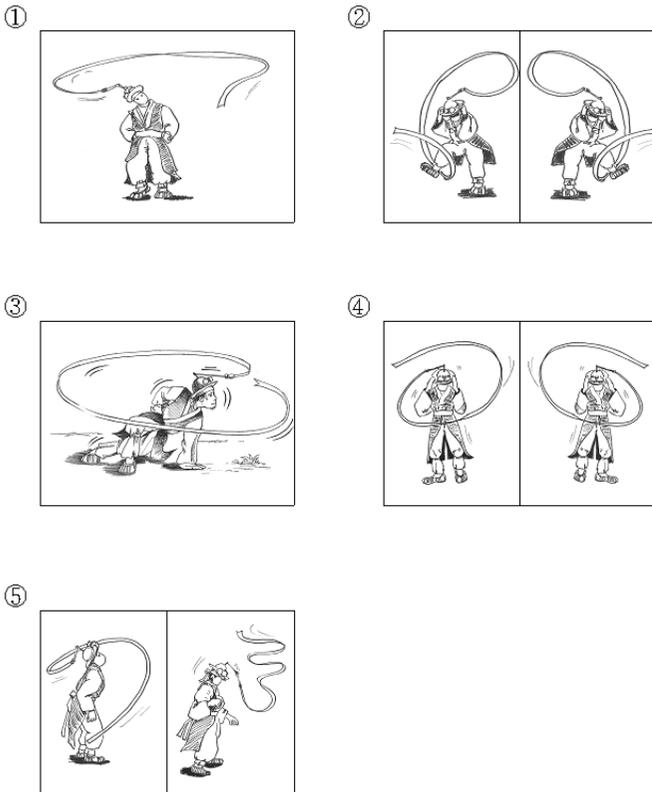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강의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지진의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 ② 지진의 진도와 규모란 무엇인가?
- ③ 지진의 진도와 규모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 ④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지진을 표시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2. (물음) 이 방송에서 보여 주지 않은 동작은?



3. (물음) 이 수업을 통해 알 수 있는 독화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관습적 의미에 따라 읽는다.
- ② 대상과 관련된 고사를 떠올리며 읽는다.
- ③ 대상의 생태와 관련지어 의미를 읽는다.
- ④ 대상의 이름을 동음이의어로 바꾸어 읽는다.
- ⑤ 대상과 관련된 유명한 글귀를 상기하며 읽는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대담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 부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박 부장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사회자는 대담자의 발언을 요약하며 다음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박 부장과 김 교수 모두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견해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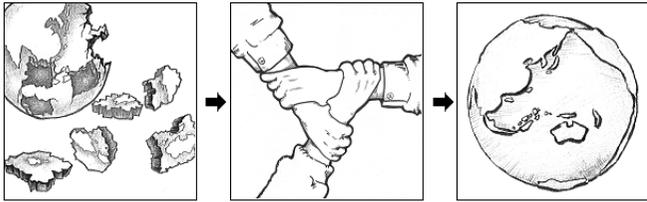
5. (물음) 김 교수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따라서 취업 지원자들은 _____

- ① 불확실한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 ② 난관에 처했을 때 자신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업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자신이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 ⑤ 능력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과제를 완수해 내는 친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인류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그림에서 연상할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군비를 확충해야 한다.
- ② 종교적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종교의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 ③ 국가 간 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
- ④ 국가 간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한다.
- 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환경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7.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소음을 줄이자'라는 홍보문을 쓰려고 한다.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자 분석】 ○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전략 수립】 ○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 소음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한다.①
- 【자료 수집】 ○ '생활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의 소송 사례', '생활 소음에 관한 주민 설문 조사 결과', '생활 소음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②
- 【내용 선정】 ○ 생활 소음을 최소화해야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이 쾌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생활 규약을 주민 회의에서 정하도록 제안한다.
 - 지역 의회에 생활 소음 유발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다.③
- 【조직】 ○ '사례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 환기 - 문제의 원인 제시 - 실천 방안 제시 - 주민들의 참여 촉구'의 순서로 구성한다.④
- 【표현】 ○ 쉬운 어휘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⑤

8. '온라인 콘텐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I. 서론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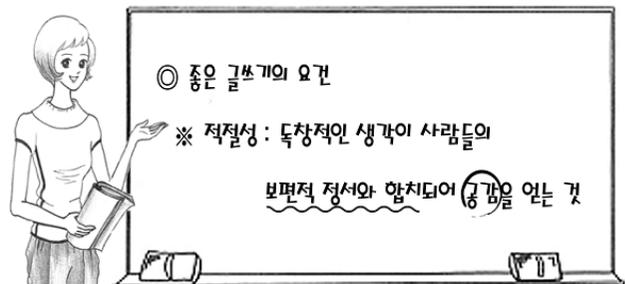
- 1. 문제점 : 콘텐츠의 질적 저하 및 콘텐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화
- 2. 문제의 원인
 - 가. 인터넷 율리 의식의 부재
 - 나.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
 - 다. 미흡한 제도
- 3. 해결책
 - 가. 공익성에 대한 인식
 - 나. 자정 노력을 통한 율리 의식 제고
 - 다. 제도의 보완

III. 결론 : 실천 촉구

* 온라인 콘텐츠(on-line contents) : 정보 통신망에서 통용되는 모든 정보와 활동

- ① 'I'의 마지막 부분에서 콘텐츠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본론의 내용과 연결시킨다.
- ② 'II-1'을 콘텐츠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로 나누어 상술한다.
- ③ 'II-2'를 내용의 흐름에 맞게 '콘텐츠의 발전 방향'으로 바꾼다.
- ④ 'II-2-가'에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 부족', '불법 복제의 만연' 등을 하위 항목으로 삼아 기술한다.
- ⑤ 'II-2'의 논리 전개에 맞추어 'II-3-가'와 'II-3-나'의 순서를 바꾼다.

9. 판서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과제를 수행할 때, 최고점을 받게 될 학생은?



<보기 1>

- 수행 과제 : 주어진 소재로 짧은 글 쓰기
- 소재 : 등대
- 조건 및 배점(부분 점수는 없음)
 -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반영할 것(3점)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3점)
 - 소재의 용도에 주목할 것(3점)

이름	수행 결과	총점
① 길동	등대는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건축물이다.	
② 춘향	등대, 밤에 나타났다 아침이면 사라지는 바다의 신기루.	
③ 은달	등대, 너는 길 잃은 배를 찾아 나서는 밤의 무법자란다.	
④ 몽룡	등대, 어둡고 힘든 곳을 향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어!	
⑤ 흥련	등대! 십년, 백년, 아니 천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바다를 향한 그리움이여!	

10. 작문 시간에 쓴 논술 답안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화의 주인공은 늘 미남 미녀였다. (㉠) 우리들은 동화의 주인공은 미남 미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미남 미녀가 아니면 그 이야기는 곧 시시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동화 속에서 인물의 가치를 외모와 동일시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솔직히 수많은 동화에서 꼭 미남 미녀가 주인공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없다.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동화에서도 저주의 마법이 풀린 것은 주인공의 외모가 아니라 ㉣주인공의 아름다운 마음씨다. 동화 속의 주인공이 그저 보통의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더욱 감동적이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 이것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① ㉠에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접속어 ‘그래서’를 넣어야겠어.
- ② ㉡은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니까 ‘보잘것없는’으로 모두 붙여 써야겠어.
- ③ ㉢은 논지에서 어긋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이다.’로 고쳐야겠어.
- ⑤ ㉤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서 부정적인 뜻을 지닌 단어인 ‘세뇌’로 바꾸어야겠어.

1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

- 격조사 : 문장 속에서 체언이 서술어나 다른 체언과 가지는 관계를 표시해 주는 조사
 - 보조사 : 체언이나 부사 등의 뒤에 결합하여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 특히, ‘은/는’은 다음과 같은 뜻을 더해줌
1.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2.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냄
 3. 강조의 뜻을 나타냄

<보기 2>

(가) 그 아이들은 밥 먹을 때 김치는 꼭 찾는다.
 (나) 영수는 수학은 잘 하지만 국어는 잘 하지 못한다.
 (다)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 ① (가)의 ‘은’은 격조사가 놓이는 자리에 쓰였군.
- ② (나)의 ‘국어는’의 ‘는’은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데군.
- ③ (다)의 ‘는’은 격조사로 바꿀 수도 있겠군.
- ④ (다)의 ‘는’은 강조의 뜻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은/는’은 그 앞의 말에 받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군.

12.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만들기
먹다	안 좋은 소리를 듣다.	⇒ 그는 호되게 욕을 먹고 물러나왔다.....①
	하려는 뜻을 품다.	⇒ 마음을 굳게 먹고 책상 앞에 앉았다.....②
	병에 걸리다.	⇒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③
	남의 것으로 욕심을 채우다.	⇒ 그 선비는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지 않았다.....④
	두려움을 느끼다.	⇒ 호통에 겁을 먹은 듯 얼굴이 파래졌다.....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 처두 목으라구 하였다만 모레는 너두 들들 데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 하는—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곳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 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홀쭉한 뒷모양이 들을 격하여 큰 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볼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바빠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끼게 하는 어조가 딱 단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느린 말투는 젊었을 때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예수교 속에서 얻은 수양인가 보다고 덕기는 늘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비하면 조부의 목소리와 어투는 자기 생긴 거와 같이 몹시 신경질적 이요 강강하였다.

㉢“그보다 더한 일이라니?”

시비를 차리는 사람이 저편의 말끝을 잠은 것만 다행이라는 듯이 조부의 목소리는 긴장하여졌다.

부친은 잠자코 췌는 모양이다.

“계집 자식이 볼드는 게 그보다도 더한 일이나? 에미 에비가 숨을 몬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나?”

똑같이 부드럽고 똑같이 일 분 간에 오십 마디밖에 아니 되는 듯한 말소리다. 그러나 노영감은 아들의 그 말소리가 추근추근히 골을 울리려는 것같이 들려서 더 못마땅하였다.

“그래 무어 어쨌단 말이나? 에미 에비 제사도 모르는 놈이 당장 내가 숨을 몬다기로 눈 하나 깜짝이나 할 터이나? 그런 놈을 공부는 시키면 무얼 하니?”

영감은 입에 물었던 담뱃대로 재떨이를 땅땅 친다.(중략)

(나) 얼굴이 비칠 듯이 어른거리는 금고 문에 손자국이 몹시 난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다가 덕기는 별안간 겁이 비쩍 났다.

사랑문이 열린 것을 보면 어떤 놈이든지 뺑소니를 쳤을 것 같기는 하나, 이 넓은 속에 또 누가 어디 숨어서 엿보고 있는 지도 모를 것 같다. 뒤로 달려들어서 객 소리도 못 치게 하고 나면 금고만이 멀뚱히 서서 모든 사실, 모든 비밀을 알 것이다. 돈이란—재산이란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요, 더러운 것인 줄을 덕기는 비로소 깨달은 것 같다. 금고문이 유착스럽게 뼈곳이 열리자, 덕기는 차근차근히 뒤지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손에 잡히는 것은 유서—유서라느니보다도 발기*를 적은 것이었다. 그 속에는 집안 식구의 이름이 거의 다 써 있었다. 그리고 여남은 개가 되는 봉투에는 각각 임자의 이름을 써서 봉하여 두었다. 덕기는 급한 대로 그 발기에 쓰인 이름과 봉투를 대조하여 보니 축난 것은 없다. 수원집의 룬과 덕기 자신의 룬도 그대로 있고, 봉투를 뜯었던 자국도 없다. 그 외에 은행 통장이라고 쓰인 봉투도 그대로 있고, 덕기와 조부의 큰 도장도 있다. 결국 저희들이 금고를 못 연 것이다.

덕기는 가슴이 빠근하면서도 후련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 발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앉았다…….

필자는 여기에 조씨 집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잠깐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귀순이(수원집 소생)—오십 석

수원집—이백 석

덕희(덕기 누이)—오십 석

덕희 모(며느리)—백 석

덕기 처—오십 석

상훈—삼백 석

덕기—천 오백 석

창훈—현금 오백 원

지주사—현금 오백 원

최참봉—현금 삼백 원

이것은 대략 처서 그렇다는 것이니, 그 중에 수원집 한 사람 몫이 이백 석 같은 것은 실상 상훈이의 삼백 석의 거의 삼 갑절 폭이나 될 것이요, 또 덕기의 천 오백 석이라는 것도 나머지는 다 쓸어 말긴 것이니 실상은 이천 석까지는 못 가도 천 칠팔백 석은 될 것이다.(중략)

(다) “원체 난봉 자식이 아비 죽기를 죄이는 법이니까 이번 중독 사건도 당신의 짓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우?”

부장은 중독 사건—죄명으로 독살 미수 사건은 수원집 일파에게 지목을 하고 거의 단서를 잡게 되었지마는, 이렇게 한번 딱 얼려 보았다.

㉣“모두 내가 잘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용혹무괴(容惑無怪)이겠지마는, 결단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상훈이는 여기 와서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아니 나왔으나, 하수 없이 허리를 굽히고 말을 낮추어서 애원하였다.

“그럼 무어란 말야? 재산을 자식에게 뺏기게 되니까, 그 따위 천하에 무도한 짓을 한 거지?”

주임은 소리를 버럭 지른다. 상훈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앉았다.

㉤“또 이 틈을 타서 재산을 훔쳐다가 팔고 잡히고 한 것은 제 죄가 무서우니까 불들리기 전에 멀리 만주로 뛰려던 것이지?”

머칠을 두고 이때껏 받은 취조에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하였건마는, 또 새 판으로 열려 대는 것이다. 부친은 잠자코 앉았고 덕기는 말을 가로채었다가 야단이나 만나지 않을까 겁이 났으나, 한 마디 변명을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빛에 즐리시는 조건이 있어서 곧 현금을 드리려 했었는데 별안간 제가 이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금 통장을 꺼내다가 쓰시려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도대체 손금고 열쇠를 집에 두고 다니거나 예금 통장을 손금고 속에 넣어 두었다면 이 지경은 아니 되는 것을, 통장과 도장은 안에 맡겨 두고 또 어머니께서는 감기가 심하시고 야단을 치시니까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덕기는 지금껏 부친이 왜 그랬을까를 곰곰 생각하던 그대로를 이야기하였다.

- 염상섭, 「삼대」 -

*강강하다 : 성격이나 기력이 굵힘이 없다.

*발기(-記) : 사람이나 물건 이름을 죽 적은 글발

*용혹무괴 :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음

1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 나타난 갈등은 (나)의 재산 분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ㄴ. (가)에 나타난 갈등은 (다)의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
 ㄷ. (나)의 재산 분배 결과는 (다)에 나타난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ㄹ. (나)의 덕기는 금고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했을 것이다.
 ㅁ. (다)의 덕기는 부친을 변호하기 위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것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4. 위 글에 나타난 조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말투를 보니 사려 깊고 교양 있는 인물이군.
 ② 아들과 하는 대화를 보니 자식에 대한 정이 깊군.
 ③ 꼼꼼하게 일일이 챙기는 것을 보니 주도면밀하군.
 ④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하여 답답하게 느껴지는군.
 ⑤ 재산을 분배한 내용을 보니 손자보다 자식을 더 믿는군.

15. 위 글을 희곡으로 각색할 때, ㉠~㉤의 대사에 어울리는 지문으로 적절한 것은?

대사	지 문
① ㉠	시비를 걸 듯 비아냥거리며
② ㉡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불손하게
③ ㉢	부드러운 어조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④ ㉣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따지고 들며
⑤ ㉤	타이르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응시하며

16.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교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② 가족의 유대 관계가 물질에 의해 허물어진다는 것이 씁쓸했어.
 ③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고 벌이는 것이 충격이었어.
 ④ 잘못을 범하면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어.
 ⑤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홀로그래피(Holography)는 그리스어로 ‘완전하다’는 의미의 ‘Holo’와 ‘그림’이라는 뜻을 가진 ‘Graphy’의 합성어로, 완벽한 그림인 3차원 입체 영상을 찍고 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일반 사진은 대상물체에 대한 2차원 정보인 빛의 명암과 색상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홀로그래피는 빛의 파동 원리에 입각하여 3차원 정보인 위상 정보를 기록, 입체 영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나) 홀로그래피의 원리는 헝가리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 게이버에 의해 1948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제대로 구현할 광원이 없어 그다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레이저가 발명된 뒤로 홀로그래피 기술 역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레이저는 여러 파장이 섞여 있는 보통의 빛과 달리 단색성(單色性)을 지니고, 휘도가 매우 강하며 빔(beam)이 퍼지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간섭성*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다)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단계별로 살펴보자. 동일한 광선이 간섭성을 좋게 하므로, 일단 레이저를 둘로 나눈다. 이때 레이저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빛을 둘로 나누기 위해서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 등이 필요하다. 둘로 나눈 빛 중 하나는 물체를 거치지 않고 필름에 닿게 하고(기준광), 다른 하나의 빛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체에 비춰 반사된 광선(물체광)을 필름에 닿게 한다. 물체광은 물체의 각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므로 물체 표면에 따라 위상차(물체 표면에서부터 필름까지의 거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기준광과 물체광이 다시 필름에서 합쳐지면, 변형되지 않은 기준광이 물체광과 간섭을 일으켜 무늬를 만들게 된다. 그 간섭 무늬에 물체의 3차원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필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 필름이 지폐나 신용카드에서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이다. 저장된 영상을 재현하려면 레이저 광선을 다시 홀로그램에 쏘아야 한다. 기록할 때와 같은 파장을 가진 파동만이 3차원으로 재현되고, 파장과 위상이 다른 빛은 아무런 효과 없이 저장된 홀로그램을 통과해 버리기 때문이다.

(라)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수단이 꼭 홀로그래피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그래피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 눈의 피로감이 없고 입체감이 뛰어나 현재도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장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마) 그러나 홀로그래피가 텔레비전으로 전송되어 안방에 등장하거나, SF 영화에 나오는 수준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과학 기술은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홀로그래피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광학 기술뿐 아니라 정보 처리 등의 매체 관련 기술, 소자 재료 기술 등 관련 분야의 긴밀한 연계에 의한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 휘도 :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의 표시 화면으로부터 복사되는 빛의 밝기의 척도
 * 간섭성 [coherence] : 음파나 광파 등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그 둘이 겹쳐져 서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현상

17. 위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홀로그래피는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 ② 홀로그래피는 3차원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다.
- ③ 홀로그래피는 빛의 명암과 색상을 이용해 입체 영상을 기록한 것이다.
- ④ 홀로그래피는 레이저 광원이 출현한 후에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 ⑤ 홀로그래피는 물체의 위상 정보를 간섭 무늬의 형태로 필름에 저장, 재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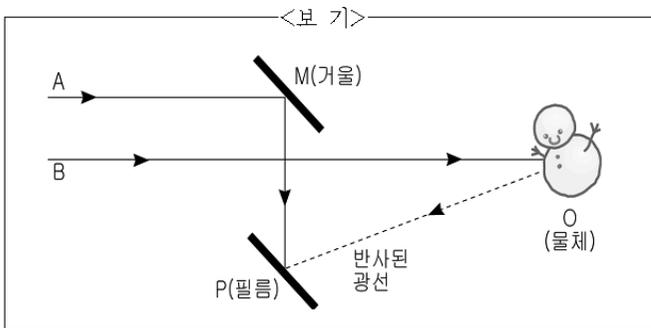
18. 위 글에서 <보기>의 '혁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발견은 자연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발명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발명은 천재적인 영감이나 과학 지식의 응용보다는 오랜 훈련과 노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기술 공학에서의 **혁신**은 이러한 발견과 발명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신기술의 상용화까지 추구하는 개념이다. 혁신은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고, 분야 간의 연계와 협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9. 위 글을 읽은 후 <보기>의 그림을 접했다고 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기준광으로, M에 의해 물체에 닿지 않고 바로 P에 도달하는군.
- ② B는 물체광으로, 직진하여 물체에 닿은 후 반사되어 P에 도달하는군.
- ③ A와 B는 서로 다른 광원에서 나온 빛으로, 그 차이에 의해 간섭성이 강화되는군.
- ④ P에서 A와 B는 서로 간섭하여 간섭 무늬를 형성하겠군.
- ⑤ P에 다시 레이저 광원을 비추면 입체 영상이 나타나겠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양소유는 난양 공주의 통소 소리에 화답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부마로 간택되지만, 양소유는 정경패(정 소저)와 한 혼약을 이유로 이를 물리치다가 옥에 갇힌다. 그 때 토번 왕이 쳐들어와서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출전하고, 난양 공주는 '이 소저'로 신분을 가장하고 정경패를 시험하고자 한다.

다음날 이 소저가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시비를 데리고 왔다. 정 소저가 나와 맞아 침실에 들어가 서로 대하여 앉으니, 월궁(月宮)의 선녀가 요지연(瑤池宴)에 참여한 듯 그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정 소저가 말하였다.

“마침 시비에게 들으니 저저(姐姐)가 가까이 와 계시다 하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인사를 사절하였기 때문에 가 뵈옵지 못하였는데, 저저가 이런 더러운 곳에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이 소저가 말하였다.

“나는 본디 초야에 묻힌 사람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일이 없어 마침 소저의 아름다운 행실을 듣고 한번 모시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평생 소원을 쫓 듯합니다. 또 들으니 댁에 춘운이 있다 하오니 볼 수 있겠습니까?” 정 소저가 즉시 시비를 명하여 춘운을 부르니 춘운이 들어와 예로써 알현하자 이 소저가 일어나 맞아 앉았다.

이 소저가 춘운을 보고 ㉠**감탄하여** 속으로 말하였다.

“듣던 말과 같구나. 정 소저가 저러하고 춘운이 또 이러하니 양 상서가 어찌 부마를 구하겠는가?”

이 소저가 일어나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하였다.

“날이 저물었으니 물러가지만 거쳐한 곳이 멀지 아니하니 다시 뵈 날이 있겠습니까?”

정 소저가 계단 아래로 내려와 사례하여 말하였다.

“나는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하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 하오니 허물치 마십시오.”

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정 소저가 춘운에게 말하였다.

“㉡**보검은 땅에 묻혔어도 그 빛이 별을 쏘고, 큰 조개는 바다 밑에 잠겨 있어도 빛이 신기루를 만드나니**, 이 소저가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괴이하다.”

춘운이 말하였다.

“첩은 의심컨대 화음 진 여사의 딸이 상서와 <양류사>를 화답하여 혼인을 언약하였다가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가 아무 데도 간 줄을 모른다 하는데, 반드시 성명을 바꾸고 소저를 좇아 연분을 잊고자 함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나도 진씨 말을 들었지만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는 궁비정속(宮婢定屬)하였다 하니 어찌 오겠는가? 나는 의심컨대 난양 공주가 덕행과 재색이 만고에 으뜸이라 하니 그러한가 한다.”

다음날 또 시비를 보내어 이 소저를 청하여 춘운이 함께 앉아 종일토록 문장을 의논하였다.

하루는 이 소저가 와서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하였다.
 “내 병이 잠깐 나아 내일은 절동(浙東)을 가려 하니 하직합니다.”
 정 소저가 ㉠슬피하며 말하였다.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주 부르시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버리고 돌아가시니 떠나는 정회를 어이 헤아리겠습니까?”
 이 소저가 말하였다.
 “한 말씀을 소저께 아뢰고자 하나 좃지 아니하실까 염려됩니다.”
 정 소저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소저가 말하였다.
 “늙은 어미를 위하여 남해 관음보살의 얼굴과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놓았는데 문장 명필을 얻어 제목을 쓰고자 하니, 원컨대 소저는 찬문(贊文)을 지어 제목을 써주시면 한편으로는 위친(爲親)*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로 잊지 못할 정표나 해주십시오. 소저가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염려하여 족자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거처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니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정 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문필은 없으나 위친하시는 일을 어이 좃지 아니하겠습니까?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가셨으면 합니다.”
 이 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면 글 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타고 온 가마가 비록 더러우나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정 소저가 허락하니 이 소저가 일어나 부인에게 하직하고 춘운의 손을 잡고 이별한 후에 정 소저와 함께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갈 때, 정 소저의 시녀 여러 사람이 따라갔다.
 정 소저가 이 소저의 침실에 들어가니 보패와 음식이 다 보통과 달리 이상하였다. 이 소저가 족자도 내놓지 아니하고 문필도 청하지 아니하자 정 소저가 ㉢민망하여 말하였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관음화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하여 뵈고자 합니다.”
 이 말을 미처 마치지 못하여 군마(軍馬) 소리가 진동하며 기치창검(旗幟槍劍)이 사면을 에워쌌다. 정 소저가 크게 ㉣놀라 피하려 하자 이 소저가 말하였다.
 “소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난양 공주로 이름은 소화입니다. 태후 낭랑의 명으로 소저를 모셔 가려합니다.”
 정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재배하여 말하였다.
 “여염집 천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귀한 공주를 알아 뵈지 못하고 예의 없이 하였으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난양공주가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차차 하겠지만 태후 낭랑께서 지금 난간에 의지해 기다리시니, 원컨대 소저는 함께 가십시오.”
 정 소저가 말하였다.
 “귀한 공주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첩이 돌아가 부모께 고하고 이후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공주가 말하였다.
 “태후가 소저를 보시고자 하여 어명을 내리신 것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정 소저가 말하였다.
 “첩은 본디 천인입니다. 어찌 귀한 공주와 가마를 함께 타

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여상(呂尙)은 어부였지만 문왕(文王)이 한 수레에 탔고, 후영(後嬴)은 문지기였지만 신능군(信陵君)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소저는 재상이 처녀인데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손을 이끌어 가마를 타고 갔다.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 * 궁비정속 : 죄인을 궁중의 계집종으로 삼음
- * 위친 : 부모를 위함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이 소저는 정 소저보다 바깥출입이 자유롭다.
- ③ 춘운은 정 소저와 함께 이 소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 ④ 황제는 정 소저의 덕행을 시험하고자 이 소저를 보냈다.
- ⑤ 정 소저는 난양 공주와 친분을 쌓게 되어 자랑스러워한다.

21. ㉠와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가인박명(佳人薄命)
- ② 낭중지추(囊中之錐)
- ③ 당랑거철회(螳螂拒轍)
- ④ 막역지우(莫逆之友)
- ⑤ 백년하정(百年河清)

22. ㉠~㉣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 체	대 상	감 정	이 유
①	이 소저	춘운	㉠	글 솜씨가 생각보다 뛰어나서
②	정 소저	이 소저	㉡	이별이 아쉬워서
③	이 소저	정 소저	㉢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서
④	정 소저	이 소저	㉣	예상했던 일이 생기지 않아서
⑤	정 소저	군마와 기치창검	㉣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23. <보기>에 비추어 위 글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운몽」에서 느끼는 흥미와 미감은 작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속임수’와 관련이 있다. 작품 속에서 등장 인물들의 관계는 ‘속임수’를 통해 이리저리 뒤바뀐다. 독자는 이 과정에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면서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또한 「구운몽」은 상하의 위계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실현하지 않는다. 상층 여성은 하층 여성을 관용으로 포용하고, 하층 여성은 엄격한 신분 질서를 스스로 수용한다. 이처럼 「구운몽」에는 조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통합을 추구하던 지배층의 중세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 ① 이 소저의 신분을 추측하는 대목에서, 춘운이 아닌 정 소저가 옳은 추론을 하는 것은 신분 질서를 의식한 설정이겠군.
- ② 효행을 위해 정 소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소저의 거짓말은 상대가 속을 수밖에 없는 치밀한 속임수로,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요소이군.
- ③ 난양 공주가 숨졌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계기로, 정 소저와 난양 공주의 관계가 대등 관계에서 상하 관계로 바뀌는군.
- ④ 가마를 같이 탈 수 없다는 정 소저의 말은 신분 제도에 대한 수용으로,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가마에 동승할 것을 원하는 난양 공주를 통해, 감화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상층 계급의 의식을 알 수 있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술이므로 재료인 음이 다르면 음악도 달라진다. 우리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은 악기 소리든 노랫소리든 서양 악기나 서양 발성의 소리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서양의 악기나 발성법이 공명(共鳴) 위주로 소리를 띄우고 둥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데 비하여, 우리의 악기나 발성법은 공명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소리를 안에서 잡고 있으면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며 재료의 본질을 살려 소리를 낸다. 전통음악은 공명 못지않게 재료 본연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야금과 대금을 만들 때에는 재료인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고르는 데 정성을 쏟고, 판소리 명창은 목을 단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다.

전통음악의 특징은 장단에 잘 나타나 있다. 서양음악의 박자 구조와 달리 전통음악의 장단은 리듬의 형태를 가진 박자의 개념과 함께 빠르기, 강약, 리듬 주기(pattern)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통음악에서 한 장단은 느린 진양조부터 빠른 자진모리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하다. 거기에 비하면 서양음악의 박자는 2박자, 3박자, 4박자 등이 있어서 장단보다 단위도 짧고 구조도 규칙적이고 단순하다. 장단의 흐름이랄까 세(勢)로 보면, 서양음악이 짧은 예비에 이어서 강박이 나오는 반면, 전통음악은 길게 뜬을 들여서 후반부에 힘을 모으고 다시 풀어주는 식이므로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통음악의 특징은 선율에도 잘 나타난다. 전통음악의 선율은 어떤 음과 음들을 그냥 ‘똥~똥’ 치기만 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각 음들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어떤 음은 농현(弄絃)을 해주고 어떤 음은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꺾어 내려 주기도 하면서 갖가지 시김새*를 구사하여 선율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한 음을 역동적으로 쭉 뻗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음을 위에서 아래로 슬픈 감정을 가지고 끌어내리기도 하면서, 음악을 죄었다 풀었다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어떻게 화성(和聲)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 음악이 화성이 있는 서양음악과 같은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판소리가 오페라 못지않은 극적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비밀은 바로 전통음악의 선율법과 그것을 표현하는 창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음악의 합주는 여러 악기가 각개의 음색을 가지고 그 악기가 지닌 특성과 시김새를 최대한 살리면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다. 합주의 선율적인 배대는 같다. 그러나 각 악기의 음색이 다르고 연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우러짐이 음향의 충실함을 만들어 주고 한국적 음악미를 만들어 낸다. 각 악기들은 다른 악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리의 합주곡은 합주 자체도 연주곡으로 인정받지만, 그 합주곡의 한두 악기 부분만 떼어내어 연주해도 독립된 연주곡으로 인정받는다. 부분에 해당하는 각 악기의 독립성과 전체에 해당하는 합주의 독립성이 함께 인정되는 열개인 것이다.

* 농현 : 현악기 연주에서 여러 가지 장식음을 내는 수법

* 시김새 : 좁게는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骨格音)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 넓게는 다양한 표현 기법

24.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전통음악의 우수성
- ② 전통음악의 연주 방법
- ③ 전통음악의 미학적 특징
- ④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의 만남
- ⑤ 음악에 반영된 동서(東西) 문화의 차이

25.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성의 유무는 음악적 표현력과 절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군.
- ② 장단의 흐름에 주목하면, 전통 음악에 비해 서양 음악이 훨씬 복잡하겠군.
- ③ 장단의 길이와 세(勢)의 흐름이 일정할 때, 악기 본래의 소리를 살릴 수 있겠군.
- ④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위해 기교를 부리지 말아야겠군.
- ⑤ 전통음악을 합주할 때는 악기의 특성에 맞는 선율을 배정하여 화성을 이루어야겠군.

26. [A]에 나타난 합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 ① 먹의 농담(濃淡)만을 살려 그린 수묵화
- ②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이 어우러진 연극
- ③ 몇 편의 짧은 이야기로 공통된 주제를 드러내는 유니버스 소설
- ④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동작을 하는 매스 게임
- ⑤ 여러 가지 색상의 유리 조각을 평면에 붙여 무늬를 만드는 모자이크

27.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전통음악의 합주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무대의 구조와 관객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 주어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 ② 전통음악이라는 범주에는 다양한 하위범주들이 포함되는데도, 이들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
- ③ 전통음악에는 화성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서양음악의 화성과 유사한 극적 표현력을 낼 수 있는 선율법과 창법이 있지 않을까?
- ④ 전통음악이 재료 본연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끌어내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고 했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 ⑤ 전통음악의 선율은 어떤 음을 그냥 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니르거늘 드로니 長安(장안)이 바둑 장거 간하니,
 百年(백 년)에 世間(세간)이 이레 슬후를 이기디 못 호노라.
 ㉠王侯(왕후)의 지비는 다 새 넘자히오,
 선비와 호반*과이 衣冠(의관)이 넷 時節(시절)와 다르도다.
 바르 北(북)녘 關山(관산)엔 鏗(쟁)과 북 소리 振動(진동)호엿고,
 西(서)스 녀그로 征伐(정벌)호는 車馬(차마)는 羽書(우서)* |
 더되도다.

㉡魚龍(어룡)이 괴외호고* ㄱ 숲 ㄴ 르미 서늘하니,
 故國(고국)에 平時(평시)에 사던 짜할 사랑호는 배 이소리.

聞道長安似奕碁 百年世事不勝悲
 王侯第宅皆新主 文武衣冠異昔時
 直北關山金鼓振 征西車馬羽書遲
 魚龍寂寞秋江冷 故國平居有所思

- 두보, 「추흥(秋興)」 -

- * 선비와 호반 : 문반과 무반
- * 우서 : 군사상 급하게 전하는 격문(檄文)
- * 괴외호고 : 적막하고

(나)

이웃집 아희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簾笠)을 걸쳐 쓰고 망혜(芒鞋)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놀이 한가롭다
 원근산천이 흥일을 띠었으니
 만경창파에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취어(取魚)하라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낚시대를 떨쳐드니 잠든 백구(白鷗) 다 놀란다
 백구야 나지마라 너 잠을 내 아니다
 성상(聖上)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네 본디 영물(靈物)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평생에 굶던 입을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수심(愁心)이 첩첩하여 마음을 들 데 없어
 ㉢흥(興) 없는 낚시대를 실없이 던졌으니
 고기도 불관(不關)커든 하물며 너 잡으라
 그러도 모르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종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웅당 알 리로다

(중략)

낚대의 줄 거두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강촌에 돌아들어 주인집 찾아오니
 ㉣문 앞에 지킨 개는 나를 반겨 꼬리 친다
 난감하다 이 내 고생이 오랜 줄 가지(可知)로다
 짓던 개 아니 짓고 임자로 아는구나
 반일(半日)을 잊은 시름 자연(自然)이 고쳐나니
 아마도 내 시름은 잊자 해도 어려워라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조대 : 뉴시터
* 은련옥척 : '성실하고 아름다운 큰 물고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다)

계수님께

창문에서 크게 떼어서 아마 스무 낱은 걸음 될까. 양재공장 입구를 엿비슷이 비킨 자리에 ㉠'짜보'라는 인도네시아 원산(原産)의 자그마한 닭 한 쌍이 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어김없이 울기 시작하여 이곳에 잠시 산촌의 아침을 만들 어줍니다.

이 닭은 양재공장 사람들이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사람들이 또 무엇을 가둔다는 것이 필시 마음 아픈 일일 터인데도, 역시 '키운다'는 기쁨은 그 아픔을 갚고도 남는가 봅니다.

나는 운동 시간에 그 앞을 지나다 이따금 발걸음 멈추는 한낱 구경꾼에 불과하여 아픔이든 기쁨이든 마음에 담을 처지가 못 될 뿐 아니라 책 들고 새벽을 앓았다가 닭 울음에 더러는 글줄 종이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훌륭한 새벽의 친구입니다.

토종 장닭의 길고 우렁찬 목소리에 비하면 아무래도 짧고 가늘어 인공(人工)이 가해진 듯한 그 생김생김과 더불어 불구하고서 받는 애처로움 같은 것을 자아내기도 합니다만, ㉡이역(異域)의 좁은 닭장 속에서도 제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새벽을 외치는 충직함은 언제부터인가 나의 가슴 한쪽에 그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게 합니다.

벼들은 보이지 않고 하얀 벼들개지만 날아웁니다. 박토(薄土)에 내리기를 머뭇거리는지 오레오레 5월의 바람 속을 서성입니다.

- 신영복, 「감옥 속의 닭 '짜보'」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임파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② (가), (나)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다)는 현실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세속을 벗어나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29. (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 ② (가)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가),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0. <보기>와 (나)를 통해 탐구 과제를 정하고자 한다. 과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백구(白鷗)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라
성상(聖上)이 바리시니 갈 되 없어 예 왓노라
이제란 공명(功名)을 하직(下直)하고 너를 좇아 놀리라

- ① <보기>와 (나)에 드러난 작가 의식을 분석하여 유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태도를 살펴봐야겠어.
- ② <보기>와 (나)를 통해 평민 계층에서 향유되던 문학이 양반 계층까지 확산된 배경을 찾아봐야겠어.
- ③ <보기>와 (나)의 공통 주제인 연군의 정을 바탕으로, 유배와 연군 의식의 관계를 조사해봐야겠어.
- ④ <보기>와 (나)에 나타난 공통된 구절을 비교 분석하여 문학 작품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 ⑤ <보기>와 (나)에 나타난 숙명론적 삶의 태도를 찾아보고,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작품에서 살펴봐야겠어.

31.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알려준다.
- ②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다.
- ③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④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⑤ 현대 문명의 속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세상의 변화와 혼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 고기잡이에 뜻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 ④ ㉣ : 강촌 생활에 적응한 만족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 :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초인을 꿈꾼다. ‘초인적인 힘’, ‘초인적인 능력’ 같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런 식의 내용을 즐겨 다룬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내는 ‘~맨’류의 작품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은 공상적인, 허깨비 같은 초인 개념이다.

초인은 어떤 험란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초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원한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인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험거운 세상을 미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런 초인의 철학을 보여 준다. 『장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눈을 더 넓고 깊은 지평으로 돌리게 해 준다.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호방한 용기와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나 『장자』의 이런 ㉡호방함과 초연함은 깊은 체험이 결여된 들뜬 선언이나 호언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 책의 행간에서 처절할 정도의 비극적 눈길, 잔혹한 세상을 바라보는 젖은 눈길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잔인무도한 현실에 대한 고난에 찬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장자』는 이런 심연을 딛고 일어서서 초연함과 희망을 주기에, 위대한 텍스트이다.

장자의 사유는 철저하게 비사변적이다. 만일 우리가 경험주의라는 말을 직접적 지각이나 실험, 사료의 확보와 같은 편협한 과학적 방법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유의 근본 태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자는 철저한 경험주의 철학자이다. 이때의 경험은 현실에 대한 외적인 지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인생(人生)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정직한 눈길이라는 의미이다.

장자는 박진감 넘치는 필치와 인상 깊은 이미지들로 감잡한 현실과 좁쌀 같은 인간들의 세계를 벗어나려 한다. 장자의 사유는 변신의 사유이다.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사유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체제, 사물들을 가르치는 본질선들, 기호들의 체제, 제도가 부여하는 ㉢자리와 지위들, 현실이 요구하는 가치들……. 이런 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삶을 찾아 나설 용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장자 사이에는 건너될 수 없는 인식의 간격이 존재한다.

인간의 사회는 자리들과 이름들로 구성된다. 자리들과 이름들의 체계는 위(位)를 구성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位)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발버둥치고 산다. 그러나 장자는 이 위(位)를 거부한다. 그것은 무위(無位)의 삶이다. 그러나 이 무위의 삶은 무엇인가 도드라지는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험란하고 엄청난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위의 삶은 위(位)가 강요하는 갈등, 경쟁, ㉤질시와 시기, 피곤한 타인의 눈길들, 허망한 ㉥기쁨과 슬픔 같은 것들에서 해방되어 소요하려는 삶이다. 그러나 역으로 그러한 소요의 삶은 갖가지 험거운 고통들, 타인들의 피곤한 눈길들을 가져온다. 무위의 삶은 그러한 고통들과 눈길들을 감내하는 삶, 아니 감내조차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장자적 초인은 위(位)의 삶이 생각하는 초인이 아니라, 무위의 삶이 생각하는 초인인 것이다.

3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말한 것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혜자(惠子)가 장자(莊子)에게 말했다.
 “위(魏)나라 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하나 보내 주므로 이것을 심었더니 닛 섬짜리 박이 열렸네. 그 속에다 장을 채워 두었더니 들 수가 없었네. 다시 두 쪽으로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었으나 너무 넓어서 쓸 수가 있어야지. 텅 비어 크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 소용 없어 그것을 부수어 버렸네.”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는 참으로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지금 자네는 닛 섬짜리 바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서 그것으로 큰 통을 만들어 강호(江湖)에 띄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쓸 데가 없다고만 근심하는가? 자네야말로 아직도 몹시 옹졸한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군.”

- ① 장자의 대답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볼 수 있군.
- ② 혜자와 장자 모두 사물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군.
- ③ 장자가 혜자를 다그치는 것을 볼 때,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④ 혜자와 장자의 갈등은 사물의 가치 평가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⑤ 바가지를 부수어 버리는 혜자를 통해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볼 수 있군.

34.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자의 사유는 위(位)의 삶을 중시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 ② 장자의 초인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 ③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초인은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④ 장자는 기존의 갑갑한 세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지향한다.
- ⑤ 장자의 사유는 비현실적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35.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에 열중하는 ○과장
- ② 친구의 비싼 휴대폰을 보고 욕심이 생긴 ○○○
- ③ 은행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씨
- ④ 일류 대학의 간판을 얻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지원한 ○○○
- ⑤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 예보를 듣고 비싸지만 따뜻한 옷을 장만한 ○○○

36. ㉠~㉥ 중, 앞뒤의 단어가 반의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후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물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들음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나)

구암리 셋강 고모네 집
 갈대밭 사이
 배 저어가는 뱃노래
 배하고 뱃사공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문득 머리에 수건 동여맨
 젊은 뱃사공 보이는데
 젊은데 늙은 사람 목청 잘 나온다

휘영청 달도 잘도나 밝아라
 노 저어라 노 저어
 너울너울 칠산 바다
 노 하나 저어 건너간다
 반짝반짝 별도나 많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
 강남길 멀고 멀어도
 노 하나 저어 건너간다

고모네 갈대밭에서
 나는 컸다
 뱃노래 들으며 컸다
 크면 눈물이 나오는지
 그 노래 멀어져가며
 나는 서러웠다
 고모가 준 깻묵도 먹지 않고
 노 하나 저어 ㉣건너간다

- 고은, 「고모네 집 뱃노래」 -

(다)

아베 ㉠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려요.
 「 등잔불도 없는 제상에
 ㉡ 축문 당한기요.
 「 놀러 놀러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 윤사월 보릿고개
 ㉤ 아베도 알지려요.
 「 간고등어 한손이른
 ㉥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 저승길 배고플라요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 아버지
 니 정성이 엄침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화자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바슐라르는 불꽃은 영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내면의 고독을 자각하고, 시침을 과거로 돌려 추억을 회상한다. 또한 불꽃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며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나. ‘원형적 심상’이란, 어느 한 시대의 개인이나 민족 구성원의 차원을 넘어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며 되풀이되는 인류의 보편적 심상을 뜻한다. 그중 ‘불’의 원형적 심상은 축제, 금기의 파괴, 원초적인 동경, 삶과 죽음의 경계, 원초적인 사랑 등을 의미한다.

- ① 화자는 불꽃의 이미지를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한다.
- ② 화자는 램프불을 떠올리며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 ③ 화자는 불빛에 비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에서 원초적 사랑을 발견한다.
- ④ 화자는 유년 시절의 캔델라불을 떠올리며 자유로웠던 지난 삶을 동경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램프불 - 캔델라불 - 전등불 - 휘황한 불빛 - 실루엣’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추억을 회상한다.

39. ㉠~㉥ 중, <보기>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 기>

시간과 공간은 시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위의 시어 중 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동시에 함축함으로써 현실적인 시·공간을 심리적인 시·공간으로 심화, 확장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에 대한 아베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그렇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축문 하나는 있어야겠지.
- ② ㉡ : 지금 이 밥상은 세상 그 어느 밥상보다 나은 진수성찬 이란다.
- ③ ㉢ : 그럼 잘 알지. 이 어려운 계절에 애비의 제사상을 차리느라 네가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짠하다.
- ④ ㉣ : 살아서는 너에게 고생만 시키고 잘 먹이지도 못해서, 오히려 이 애비는 네가 간고등어 먹는 것을 보고 싶구나.
- ⑤ ㉤ : 무슨 소리니, 오히려 나는 네가 걱정이구나.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관행’에 관한 해석에 있다.

먼저 정당한 범위는,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물에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창작하여 작성한 부분이 주(主)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좀더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從)으로서 인용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

그리고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이용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즉,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인용만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자기 저작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도의 자료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학설 또는 주장을 논평하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을 허용하는 것은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을 이후에 등장할 저작자와 독자들이 가능한 한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인용이라 하더라도 출처 명시 의무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법리의 해석뿐만 아니라 도리에도 맞는다. 만약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도용(盜用)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인용 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시함으로써 인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이다.

41.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② 인용은 문화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 ③ 사회적 통념과 공정한 관행은 어떤 관계인가?
- ④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 ⑤ 정당한 인용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42.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게 묶은 것은?

<보기>

ㄱ. 분석적 방법을 통해 대상의 요건을 제시한다.
 ㄴ.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ㄷ.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절충적 대안을 모색한다.
 ㄹ. 주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출판사에서 출간한 『나의 인생』은 미국 작가 A의 소설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했다. ㄱ출판사는 무명 작가인 B를 고용해 A의 작품과 흡사한 줄거리의 소설을 쓰게 하고, A의 소설에 실려 있는 사진을 삽화로 그려 넣어 책을 만들었다. A는 지난해 ㄱ출판사와 출판사 대표를 고소했고, 출판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일보 -

- ① ㄱ출판사는 외국 책을 표절하여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해.
- ② A가 B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범위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B에게는 물을 수 없는 것이로군.
- ③ ㄱ출판사가 A의 소설을 차용했다라도 고용한 B의 실명을 밝혀 주었다라면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
- ④ ㄱ출판사가 A의 소설을 표절한 것은 정당한 인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그려 넣은 삽화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야.
- ⑤ B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소설을 썼다고 해도 A가 쓴 글이 주(主)가 되므로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44. 위 글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찾은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권의 개념을 설명한 사전
- ② 저작권의 종류와 목적을 다룬 법전
- ③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통계 자료
- ④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사례
- ⑤ 저작권의 양도 방법과 보호 기간을 설명한 서적

[45~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부터 n^2 까지의 연속된 자연수를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아지도록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n행 n열 마방진이라고 한다. 사각형 모양의 숫자 배열을 ‘방진’이라고 하니, 마방진(魔方陣)은 ‘마술적인 성질을 가진 정사각형 숫자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태의 마방진이 만들어지고 이를 이론화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먼저 출현한 마방진은 3행 3열의 마방진일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나라의 우임금은 황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 공사를 하던 중, 강 한복판에서 등에 이상한 그림이 새겨진 거북이를 만났다. ‘낙서(洛書)’라고 불리는 이 그림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배열되어 있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은 15가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낙서’가 세상의 비밀과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낙서를 주역의 원리가 함축된 그림으로 인식하기도 했고, 우주의 진리를 표상하는 그림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4	9	2
3	5	7
8	1	6

<‘낙서’의 마방진>

그러나 마방진은 비밀스럽게 전수되어서 기록으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 중국의 ‘낙서’ 이후 유물로 남은 마방진은 뒤러의 4행 4열 마방진이다. 16세기 초 독일의 뒤러는 자신의 판투정에 <멜랑콜리아 I>이라는 판화를 남겼는데, 거기에 4행 4열의 마방진이 새겨 있다. 이 마방진의 맨 아랫줄 가운데 두 칸의 숫자는 15와 14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를 연속해서 쓰면 그가 죽은 해인 1514년을 가리키도록 한 교묘한 방진이였다.

이처럼 마방진이 가진 교묘하고 신비한 특성은 글자 그대로 마술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때문에 마방진은 고대부터 자연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근대의 수학자들도 관심을 가졌다.

마방진은 그림의 구도를 잡는 원칙을 제공한다. 특히 마방진에는 가로, 세로줄에 서로 다른 요소들을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는 ‘라틴 방진’이 있는데, 이 방진은 실험 설계의 하나인 ‘라틴 방진 설계’의 방법론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마방진은 마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중세의 이슬람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마방진을 부적으로 쓰기도 했다. 요즘에도 마방진을 취미로 연구하는 동호인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마방진에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전문 수학자들 사이에서 마방진이 연구되면서 고급 수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수학자 알렌 아틀러는 방진의 원리를 이론화해서 컴퓨터를 동원해 3차원 입체 마방진을 고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연구했음에도 여전히 마방진 전체를 아우르는 명쾌한 수학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5.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마방진의 개념 ② 마방진의 기원 ③ 마방진의 폐해
- ④ 마방진의 종류 ⑤ 마방진의 응용

46. 위 글을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대 수학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마방진 놀잇감을 많이 만들어 수학의 원리를 터득해 내야 한다.
- ② 마방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와 공식을 밝혀 내야 한다.
- ③ 컴퓨터를 활용해 평면 방진을 뛰어넘는 입체 마방진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 ④ 마방진의 오묘한 숫자 배열을 통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주의 비밀을 규명해야 한다.
- ⑤ 동서양 수학자들이 마방진을 통해 어떻게 수학을 연구하고 생활화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47. 위 글과 관련해 <보기>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래 그림은 뒤러의 동판화 <멜랑콜리아 I>에 그려져 있는 마방진이다. 당시 사람들은 3행 3열 마방진은 우울함의 상징인 ‘새턴(Saturn)’에, 4행 4열 마방진은 활력의 상징인 ‘주피터(Jupiter)’에 연결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뒤러는 사색에 열중한 나머지 우울한 기질이 생긴 예술가나 수학자의 머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는 ‘주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행 4열 마방진을 이 그림에 그려 넣은 것이다.



16	3	2	13
5	10	11	8
9	6	7	12
4	15	14	1

- ① 이 그림의 마방진에는 신비의 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깃들어 있군.
- ② 이 그림의 마방진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림의 구도를 잡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군.
- ③ 이 그림의 마방진은 감성을 중시하는 미술과,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수학을 결합하여 얻은 산물인 셈이군.
- ④ 이 그림의 마방진을 통해 뒤러는 수학과 천문학이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이 그림의 마방진은 각 행과 열, 대각선이 모두 짝수와 홀수의 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중세 서양에서도 주역이 중시되었다는 증거이군.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물이 새로 생기거나 사물의 모양이 달라지면 그에 맞추어 낱말이 생기거나 변화하게 된다. 즉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고의 체계가 정밀해질수록 더 많은 낱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지금 풍부한 낱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성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말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어에 중국에서 많은 한자어가 유입되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몽골, 만주, 일본 등에서 유입된 말들이 조금씩 섞여 있다. 외부로부터의 문물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유입된 다양한 외래어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였다. 그런데 일본어는 우리 민족에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어서 우리말에서 일부 뽑아 버린 일이 있다.

근대화 시기에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우리에게도 국어의 의미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자신이 우리말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어 우리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으며, 이것은 우리말 조어 능력의 상실로 이어졌다. 유입되는 외래어에 무방비 상태인 상황에서 우리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어법 논란에 휘말려 폐기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근대 학문을 하는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동식물 이름에서는 멋진 우리말 이름을 지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동식물의 신조어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말 조어력의 한계만 닮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하다.

우리말은 형태소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낱말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한 분은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1908~1950) 선생이다. 일본에서 농업 분야를 연구하면서 나비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귀국하여 우리나라 나비를 채집하기 시작했고, 채집한 나비에 우리말 이름을 붙였다. 그는 새로운 나비를 발견하고 ‘부전나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비의 날개가 부전처럼 보여서 ③부전나비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부전이 뭐지?’ 하며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부전은 원래 어린 여자 아이들이 노리개로 차던 것인데 그 모양이 비슷해서 장구의 줄을 고르도록 끼워놓은 사피(斜皮)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진틀의 모서리에 끼우는 세모꼴 거밀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석주명 선생은 나비의 날개 모양에서 부전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 나비를 부전나비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곤충뿐 아니라 여러 동식물 이름을 짓는 데도 이 방법이 원용되어 수많은 우리말 동식물 이름이 만들어졌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말에는 다양한 외래어가 들어와 있다.
- ② 낱말은 사물의 생성·변화에 따라 태어나고 변화한다.
- ③ 우리말은 형태소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④ 석주명 선생은 나비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우리말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 ⑤ 근대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우리말 이름을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다.

49. ㉠와 유사한 방식의 이름이 아닌 것은? [1점]

- ① 솔이끼 ② 접시꽃 ③ 짚신벌레
- ④ 돌미나리 ⑤ 오리너구리

50.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 ④ 여러 관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상대 주장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